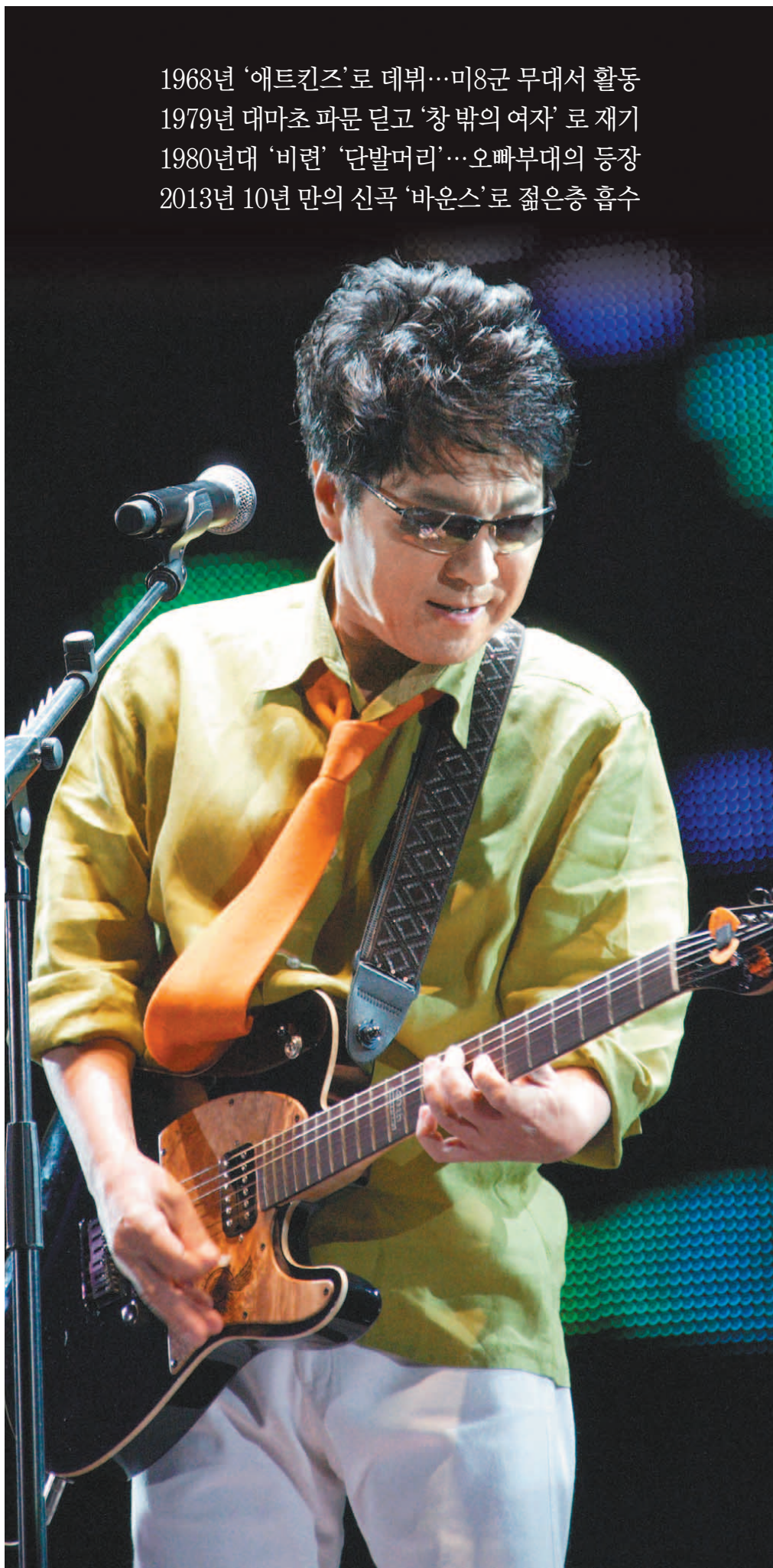


조용필 음악인생 50주년 | 1979년 ‘창 밖의 여자’부터 2018년 ‘평양 공연’까지…

조용필 앨범 및 주요 수록곡	1집  1979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오백년	2집  1980년 춧불, 잊기로 했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3집  1981년 고추잠자리, 미워미워미워, 일편단심 민들레야	4집  1982년 못찾겠다 꾀꼬리, 보고싶은 여인아, 자존심, 비련	5집  1983년 친구여, 한강, 나는 너 좋아	6집  1984년 눈물의 파티, 바람과 갈대, 가랑비	7집  1985년 여행을 떠나요, 어제 오늘 그리고, 미지의 세계	8집  1985년 허공, 칼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바람이 전하는 말	9집  1987년 마도요,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떠나가는 배
--------------------	---	--	---	---	---	--	---	---	--

꿈에서 떠오른 멜로디 ‘창밖의 여자’…조용필 시대 서막 열었다



조용필은 중학교 때 기타를 처음 잡은 후 60여 년간 한번도 기타를 내려놓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관객의 함성에 전율을 느낄 때가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스포츠동아DB

1968년 ‘애틀킨즈’로 데뷔…미8군 무대에서 활동
1979년 대마초 파문 딛고 ‘창 밖의 여자’로 재기
1980년대 ‘비련’ ‘단발머리’…오빠부대의 등장
2013년 10년 만의 신곡 ‘바운스’로 젊은층 흡수

‘Lead Me On’!

18살 무명의 밴드 기타리스트는 미8군을 무대 삼았다. 자신의 기타를 여러 대 부순 아버지와 불화로 집을 나온 뒤였다. 먼 타국의 땅에서 복무하던 한 흑인병사가 생일에 고향과 연인을 떠올리며 바비 블랜드의 노래 ‘Lead Me On’을 부탁해 왔다. 자리를 비운 밴드 보컬리스트를 대신해 무대에 올랐다. 병사는 노래에 눈물을 흘렸다.

기타리스트는 가수의 삶을 다짐하며 노래 제 목처럼 음악이라는 인생으로 이끌려갔다. 하모니카와 트럼펫, 기타의 선율에 꿈을 꾸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염전의 제방 위에서 들던 비틀스와 레이 찰스와 롤링스톤스처럼 가수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했다.

음악인생 50년. 힘겨워 파란만장했고, 최고의 기량과 실력으로 영광스러웠던 시간. 조용필은 ‘가왕’이라는 국민적 존경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에 보답했다. 바로 그 삶에 노래와 음악이 있다. 그 가운데 그의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된 노래를 다시 듣는다.

●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고 ‘한오백년’

1968년 그룹 애틀킨즈를 결성하며 미8군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용필은 오랜 시간 무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여러 밴드를 전전하며 밤무대를 돌던 그는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며 오버그라운드에 나섰다. 1970년 김해일이 부른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리메이크한 노래였다. 1973년 한 차례 같은 노래를 담은 음반을 내놓았지만 묻혀갔다. 이를 김래코드 박성배 사장이 다시 음반으로 발매하자 했다. 그룹 25사에서 함께 활동한 조갑출과 ‘아시아 최고 의 스트라이커’로 불린 축구스타 이희택도 힘을 보탰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당시 재일동포들의 잇단 모국 방문의 대열 속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 광범위한 대중적 사랑을 확보해 갔다. 탁성의 진한 감성으로 부른 노래는 어두웠던 시절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인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1977년 5월 조용필은 은퇴소를 열었다. 1960년대 말 잠시 피웠던 대마초 때문이었다. 그해 3월 누군가의 투서로 대마초 흡연 시비에 휘말렸다. 결국 가요계를 떠났고, 이희택과 함께 낚시터로 나돌았다.

그때 ‘한오백년’의 애잔한 선율이 들려왔다. 판소리 공부에 몰입했다. 무대에 나설 수 없었던 때 판소리로 쓰린 가슴을 달랠다.

“판소리에 대한 도전은 그 이전에 조용필의 소리 내공 갖고도 힘에 부쳤다. 따라서 목이 자꾸 가렵고 심지어 토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소금을 먹으며 목의 열을 식혀가며 더욱 정진했”던 그는 “득음의 경지에 도달”했고, “그토록 그리던 탁성과 고음과 중음, 저음의 소리 구성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두루 하나 되어 간직할 수 있게 됐다”. (구자형, ‘음악과 자유가 선택한 조용필’)

1979년 10·26 이후 12월 마침내 대마초 파문에서 벗어난 그는 동아방송 드라마 ‘창 밖의 여자’의 동명 주제를 부르며 다시 대중 앞에 나섰다.

● ‘창 밖의 여자’ 그리고 1980년대

밴드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연습벌레였던 조용필은 작사가 배명숙의 노랫말을 듣고 “끼나까지 걸러 가며 오선지와 씨름한 지 닷새, 밤을 꼬박 새우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던 멜로디가 꿈결처럼 귀에 들려왔”고, “미친 듯이 악상을 옮겨 적었다”고 술회했다. (1998년 11월16일자 경향신문) ‘창 밖의 여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런 노력 끝에 ‘창 밖의 여자’는 최고의 인기곡이 되었다. 1980년 9월 TBC ‘제16회 방송가 요대상’의 최우수 남자가수상을 거머쥐었다. 절규하듯 부른 노래는 그해 5월 광주의 아픔과 혼돈스럽고도 우약스런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대중의 가슴을 달래주었다.

1980년대는 그야말로 조용필의 시대였다. ‘가수왕’이라 불리던 MBC ‘10대 가수상’의 최고 인기상을 매년 가져간 그는 ‘기도하는…’이라는 소절로 시작하는 ‘비련’ 등으로 ‘오빠부대’라 불린 막강한 팬덤을 형성해 갔다. 신시사이저의 신비로운 음색을 더한 ‘단발머리’, 가성의 탁월함으로 듣는 맛을 안겨준 ‘못찾겠다 꾀꼬리’ 등은 그 파격의 형식으로 실험성을 확보하면서도 대중성까지 더하며 훗날 ‘가왕’으로 불릴 면모를 쌓아주었다. 트로트에서부터 록에 이르는 폭넓은 장르 안에서 그는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았다. 그 누구도 그가 쌓아올린 아성을 무너트릴 수 없었다.

● ‘헬로! 독보적 고유명사’ 조용필

“인기, 한 마디로 사람 잡는 것이다.” (1991년 6월2일자 동아일보)

조용필은 그 아성 위에서 이렇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인기에 취해 한때 오만했던 스스로를 질타하는 말이기도 했다. 한 번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사별 등 ‘자연인’으로 겪은 인생의 회한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쌓이는 동안 그의 음악의 감성과 정서도 더욱 깊고 짙어졌다. ‘친구여’ ‘허공’ ‘칼리만자로의 표범’ ‘바람이 전하는 말’ ‘꿈’ 등은 노랫말의 힘으로써 철학적 가치를 더해주었다.

‘국민가수’의 면모는 그 인기의 탑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 같은 성숙함으로 조용필은 대중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파격적이고 신선하지만 그만큼 더욱 친근한 음악으로 다가왔다. 2013년 10년 만에 내놓은 새 앨범 ‘헬로’와 그 수록곡 ‘바운스’는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되었다. 꺼지지 않는 음악적 열정으로 젊은 세대와 오래 묵혔던 자신의 감성으로 교류하며 그는 이제 ‘조용필’이라는 독보적인 음악세계의 고유명사로 불리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 조용필 연보

시기	내용
1950년	3월21일 염전업 집안 3남4녀 중 여섯째(막내아들)로 출생
1967년	대한일보 스카이라운지에서 대타로 기타 연주. 아마추어 첫 무대
1968년	집안 반대로 자살 시도. ‘애틀킨즈’ 멤버로 데뷔
1969년	‘파이프 핑거스’ ‘김트리오’ 활동
1977년	대마초 사건 연루로 활동 금지. 은퇴 선언
1979년	대마초 연애인 해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결성
1980년	1집 국내 최초 앨범 100만장 판매 MBC ‘10대 가수가요제’ 가수왕 6회 국내 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홀 초청 공연
1981년	영화 데뷔. ‘그 사랑 한이 되어’ 유지원과 주연 3집 ‘미워 미워 미워/여와 남’ KBS ‘가요대상’ 최고인기가수상 4회
1982년	일본 NHK를 첫 단독 콘서트
1983년	미국 11개 도시 순회공연
1984년	일본 CBS-SONY 골든디스크상 수상
1986년	‘추억의 미야’로 일본 내 한국가수 최초 단일앨범 100만장 판매
1987년	일본 NHK 홍백가합전 한국가수 최초 출연
1988년	국내 가수 최초 중국 베이징 공연
1989년	일본 전국 순회 공연
1991년	1집 100만장 판매 기념으로 협회 인정
1993년	해운대비치콘서트 10만명 동원. 단독 공연 최다 관객 기록
1994년	국내 최초 음반 판매 1000만장 돌파 재미교포 안전현 씨와 결혼(2003년 사별)
1995년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탑 개막식 참석
1996년	‘친구여’ 대중가요 최초로 음악교과서(고1) 수록
1998년	MBC ‘정부수립 50년’ 최고 스타상 가수부문 수상
1999년	KBS ‘가요대상’ ‘20세기 최고 가수상’ 수상 국내 가수 최초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공연
2003년	국내 가수 첫 잠실종합운동장 콘서트
2005년	국내 가수 최초 월드컵경기장 투어 ‘필&피스’ 국내 가수 최초 평양 류경체육관 단독공연
2008년	2월11일부터 21일간 매일 2시간씩 총 42시간 경인방송 씨네프M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 조용필 특집 방송. 하루 3명 이상 홈페이지 접속해 마비. 국내 최초 사례 아시아 가수 최초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홀 콘서트
2009년	조용필 장학재단 설립
2010년	국내 유료 콘서트 역사상 최단 기간 최다 관객 동원
2011년	‘대중음악사 20년 최고의 가수’로 노래 1위 선정
2013년	은관문화훈장 수상
2017년	영화 ‘택시운전사’에 ‘단발머리’ 삽입. 자신의 노래 영화에 사용 첫 허락
2018년	평양 공연. 50주년 공연

연예 남북을 보는 또 다른 창 ‘스크린’

PMC·공작·스윙키즈…재미만점 ‘남북 영화’ 쏟아진다

세계의 시선이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향한다. 27일 진행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 나란히 서는 남북 정상의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언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 섞인 공감증도 커지고 있다. 예측 가능한 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도 있다. 호기심과 상상이 더해진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답을 내놓는 곳은 다름 아닌 스크린이다. 한국영화가 남북을 보는 또 다른 창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영화계에서 활발히 제작된

남북한 소재 영화들이 올해는 소재와 장르의 다변화까지 이룬다. 볼과 얼마 전 한반도 핵전쟁 위기와 그 해결을 담아 공감을 얻은 ‘강철비’와 북측 고위 자제의 범죄극을 그린 ‘브이아이피’가 주목받기도 받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개봉하는 하정우·이선균 주연의 ‘PMC’(감독 김병우·제작 퍼펙트스튜디오)의 배경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무대인 판문점이다. 영화는 판문점 지하 30미터 아래 벙커 회담장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을 그린다. 이번 회담을 통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는,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전투를 다룬

다는 사실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하정우가 주연과 함께 제작자로도 나섰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영화도 나온다. 황정민·이성민 주연의 ‘공작’(감독 윤종빈·제작 영화사월광)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을 둘러싼 남북한 사이에서 벌어진 실화를 모티브로 한다. 흑금성이란 암호명으로 북한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간 교위중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특히 ‘공작’은 5월8일 개막하는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5월

11일 현지에서 처음 공개된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핵 문제를 다룬 영화가 칸 현지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받고 있다.

남북을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한 한국전쟁 소재 영화도 있다. 물론 앞서 나온 비장미 가득한 전쟁영화와는 결이 다르다. 전쟁 가운데 피어나는 꿈의 이야기다. 도경수 주연의 ‘스윙키즈’(제작 안나푸르나필름)는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집단 수용했던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우연히 댄스에 빠져든 북한 군인이 주인공이다.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춤을 추게 된 이들이 댄스팀을 결성하는 이야기다. 음악과 유희를 섞은 ‘씨니’, ‘파속스캔들’로 감각을 인정받은 강형철 감독이 한국전쟁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스윙키즈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